

러시아 제국의 이단아 남서문학*

- 오데사 문학에 나타난 유대인, 피카로(picaro), 언어를 중심으로

이 은 경
(청주대학교)

1. 들어가는 말

키예프와 오데사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의 남서 지역은 이국적 문화와 독특한 문학풍토를 지니고 있었다. 이 지역이 러시아 문학에서 대두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시기였다. 남서 지역은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에 견줄만한 문학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러시아 문화의 층이 풍성해지는 데 일조했을 뿐 아니라 문학적 기법이나 양식 측면에서도 상당한 발전을 가져다주었다. 체홉(А. Чехов)과 부닌(И. Бунин)이 문학적 영감을 얻기 위해 다녀가고, 1920년대에는 바벨(И. Бабель), 올레샤(Ю. Олеша), 카타예프(В. Катаев) 등이 활동함으로써 주목받았던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독특한 문학 지형을 형성한 곳이었다.

러시아의 남서 지역은 혁명 이전부터 다수의 문학 서클과 역량있는 작가들을 배출했던 곳이었다. 그 가운데는 직·간접적으로 1920년대 소비에트 작가들에게 영향을 준 이들도 많았으며, 오히려 유럽과 영미 등지에서 더 주목을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32-A00020).

받은 작가들도 있었다. 1930년대의 오데사는 모스크바 문학과 일부 레닌그라드 문학의 반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 러시아 문학사에서 이들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다. 남서 지역 출신 작가들 가운데 대다수는 의도적으로 러시아 문학에서 배제되거나 작품조차 남지 않는 불행한 운명을 겪어야 했다. 그 이유는 이들의 문학이 상당히 개인적이고 자유로울 뿐 아니라 소비에트의 공식문학에 위배되는 부르주아 성향이 강했기 때문이었다.

본 글은 러시아 제국의 말기 남서 지역의 문학적 분위기와 그곳에서 활동했던 작가들, 그리고 그들의 문학 경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남서 문학의 뿌리에는 오데사를 빼놓을 수가 없다. 항구도시의 특성상 다양한 민족들이 이곳을 왕래하며 자유롭게 교역하였고, 이민자들의 낙원으로 부각되면서 유대인들이 대거 이주해 들어왔다. 도시의 독특한 분위기가 오데사 문학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면서, 유대문학과 레반트¹⁾ 문학, 그리스 문학, 서유럽 문학 등의 이국적 색채가 특징적인 수밖에 없으며, 다른 언어들이 러시아어로 섞여 들어오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영향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본 글은 제국 말기 전성기를 구가하던 남서 문학의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남서 문학이 러시아 제국 내에서 왜 이단아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와 이 문학과역의 역사적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1) '동쪽'의 뜻이 함축되어 있는, '해가 뜨다'라는 뜻의 프랑스어 'lever'에서 유래한 것으로, 동부 지중해 연안을 가리키는 역사적인 이름이다. 베네치아 상인을 비롯한 무역상들이 십자군 원정 이후 티레·시돈 같은 도시들과 교역을 하게 되면서 널리 쓰이게 되었다. 처음에는 소아시아와 시리아의 해안지방만을 가리켰으나 뒤에는 그리스부터 이집트에 이르는 지역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또 아나톨리아 지방을 가리킬 때도 레반트라는 이름이 쓰였고, 중동 또는 근동과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했으며, 16~17세기에는 고(高)레반트가 극동지방을 뜻했다. 제1차 세계대전 뒤 프랑스 위임 통치령이 된 시리아와 레바논의 이름이 레반트 국가(Levant States)였고, 1946년 독립한 이후에도 이 두 나라를 종종 '레반트 국가'라 불렀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 인용.

II. 새로운 문학 중심으로서의 ‘오데사’

소비에트 시대의 시작으로 남서 지역의 문학은 이미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20세기 초반 연이은 사건 속에 남서지역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대거 망명하고, 지속적인 말살정책이 이루어지면서²⁾ 소비에트 문학사에서 이들의 이름도 거의 잊혀져 갔다. 그러던 중 1933년 「문학신문(Литературная газета)」에 실린 슈클롭스키(V. Шкловский)의 “남서(Юго-Запад)”라는 제목의 기사는 ‘오데사 문학’의 존재와 그 유산을 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그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오데사 문학의 전통에 대해 환기시키며 그것이 향후 소비에트 문학의 지배담론이 부상되는 시기(сюжетный перио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슈클롭스키는 ‘남서’라는 명칭이 1928년에 발표된 바그리츠키(Э. Багрицкий)의 시집 제목에서 유래되었으며 지리적으로는 오데사를 가리킨다고 설명한다.³⁾

-
- 2) 작가들의 해외 망명은 유대인에 대한 공공연한 폭력행위인 포그롬(Погром)과 더불어 혁명 등 굵직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1821년에 포그롬이 발생했고, 보론초프가 시장으로 있던 가장 번성했던 시기인 1861년에 또 다시 예기치 못한 포그롬이 일어났다. 1821년에서 1861년에 이르는 40년 동안 오데사 유대인들은 자유로운 도시에서 존중받고 동등한 권리를 갖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하지만 역사문헌에 따르면 포그롬의 역사는 이보다 훨씬 이후로 기록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1881년에 시작된 1차 포그롬과 알렉산드르 2세 암살 이후 1881~1884년에 발생한 제 2차 포그롬에 이어 1905년 1차 혁명기에 오데사를 비롯한 러시아제국의 전역에서 제3차 포그롬이 일어났다. 솔룸 알레이헴은 1905년 포그롬을 피해 스위스로 갔다가 다시 독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미국에 정착했다. 고리키(М. Горький)가 ‘망명으로 살아남은 재능있는 시인 중 한 사람’이라고 칭한 돈 아미나도(Дон Аминадо)는 전쟁을 피해 1919년부터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했으며, 폴랴코프(А. А. Поляков)는 1920년에 망명하여 파리를 거쳐 미국으로 갔고, 시온주의의 창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자보틴스키(В. Жаботинский)는 1910년부터 시온주의 운동을 시작하여 1923년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했다가 1940년 뉴욕에서 사망했다. 러시아 유대문학의 대표작가인 세몬 유슈케비치(С. Юшкевич) 역시 1920년에 파리로 망명했다.
- 3) 바그리츠키의 시집 제목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남-서(Юго-запад)’라는 용어는 20세기 초 키예프에서 발간된 잡지인 「남서 주간(Юго-западная неделя)」이라는 제명에서도 볼 수 있던 친숙한 것이었다. В. Ярмолинец, “Одесский узел Шкловского”. *Волга*. № 1-2, 2011. <http://magazines.russ.ru/volga/2011/1/ia16.html> (2011년 5월 10일)

그러면서 그는 ‘남서 문학’에 대한 정의를 ‘우크라이나 지역에서의 러시아 문학’이라고 덧붙인다. 또한 오데사가 항구인 점을 강조하면서, 그리스 문화도 이집트 문화도 아닌, 이집트 영토에 있었지만 그리스 문화권인 과거 알렉산드리아⁴⁾의 문화를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이미 고골(Н. Гоголь)을 비롯하여 그레벤카(Е. Гребёнка), 나레쥬니(В. Нарезный), 카프니스트(В. Капнист), 쿠콜리닉(Н. Кукольник)의 작품들과 글린카(М. Глинка)의 음악 속에서 보아왔던 우크라이나 문화와 러시아 문화와의 특별한 관계들이 바로 그것이다.⁵⁾

흥미로운 것은 당시 멘델레예프(Д. Менделеев)가 러시아인들의 삶의 중심이 남쪽으로 이동될 것이라고 예측했고, 그 장소로 지목한 곳이 하리코프(Харьков)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인들로 가득한 하리코프는 지지기반이 약했고, 결과적으로는 러시아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오데사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7~18세기 아스트라한(Астрахань)과 아르한겔스크(Архангельск)가 그랬던 것 이상으로 오데사는 새로운 문학유과의 중심이 되었다. 남서 지역이 문화적으로 독특한 지형을 차지하는 이유는 이곳이 고대로부터 러시아에 속해 있던 곳이 아니라 제국의 영토 확장의 결과로 근대 이후에 편입된 곳이었기 때문이다.⁶⁾ 남서 지역의 편입으로 러시아 영토 내에는

4) 알렉산드리아는 카이로 북쪽 220km 떨어진 곳에 있는 항구도시이다. 알렉산더 대왕은 BC 332년에 이집트를 정복하고 거대한 항구도시를 건설한 후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명명하였다.

5) 슈클롭스키는 자신의 글에서 남서 문학(Юго-западная литература)과의 중심을 오데사로 보고, 당시 존재하던 <남러시아 화가 연합(Товарищество южно-русских художников)>에 근거해 이를 '남부 러시아 문학(Южно-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으로 언급하다가 후에 '오데사 문학(Оде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으로 수정한다. 여기에 속하는 작가로는 바벨, 슬라빈(Л. Славин), 일프 페트로프(И. Ильф и Е. Петров), 올레샤, 카타예프(В. Катаев), 바그리츠키등이 있다. 「Литературная газета」 1933 г. № 1. (1933. 1. 5.)

6) 남서 지역은 키예프와 오데사가 포함된 현재의 우크라이나이다. 우크라이나의 동과 서는 오랜 갈등을 야기해왔는데, 그와 같은 배경에는 이들의 문화가 완전히 다른 풍토에서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예카테리나 여제 시기의 영토 확장과 맞물려 폴란드 지역이 러시아영토에 편입되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하여 러시아의 남서 지역에 이전까지 러시아 제국에서 볼 수 없던 새로운 민족들이 대거 거주하기 시작했다. 1772년부터 1795년까지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가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을 3차에 걸쳐 분할한 결과 우크라이나인, 벨로루시인 등 비러시아계인들을

다양한 인종들이 유입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러자 이를 경계한 나머지 유대인들에게 한정된 지역에만 거주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러시아의 중심사회로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였다.⁷⁾ 남서 지역이 러시아 유대문학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페일(Pale)라고 하는 ‘유대인 거주 한정 지역(Черта оседлости)’이라는 특수한 제도적, 법적 장치 때문이었다.

페일의 수도였던 오데사는 유대인들이 가장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던 곳이자 서유럽인들과의 교제가 가능한 코스모폴리탄적 도시였다.⁸⁾ 오데사는 각국에서 오는 유대인 비율만 10% 이하로 제한하되 출신 국가의 숫자를 제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곳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유대인들이 정착할 수 있었다.⁹⁾ 오데사는 그야말로 약속의 땅이었으며, 러시아 제국의 다른 도시들과 달리 자유의 공기가 살아 숨쉬는 곳이었다.¹⁰⁾ 도시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개방적 문화가 조성되었고, 다민족으로 구성된 다언어 사회가 형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문화적 소통어로 러시아어

비롯하여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러시아 제국으로 편입되었다. 1772년 한 해에만 6만 명의 유대인들이 동(東) 벨로로시아(Белороссия)로 이주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최아영, 「러시아제국의 반유대주의: 1880년 초 남부 포그롬을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 23호, 문화사학회, 2012.를 참조.

7) 유대인들은 당시 제국의 남부 및 남서부에 위치한 15개 주와 10개의 폴란드 왕국의 주가 속한 지역에만 살아야 했다. ‘유대인 거주 한정지역’은 주로 폴란드 지역과 우크라이나 남서부 지역에 국한되어있었다. 그 중에는 키예프(Киев)와 니콜라예프(Николаев), 세바스토폴(Севастополь)과 같은 대도시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 대도시들에 거주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심지어는 직업과 각종 권리를 규정하기까지 할 정도였다. 이처럼 러시아 내에서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던 탓에 남서지역에는 특히 많은 유대인들로 붐볐다.

8) 예카테리나 여제가 세운 도시 오데사는 ‘오디세이(Одиссей)’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이 도시의 초대 시장은 알렉산드르 뒤마의 『삼총사』에도 등장하는 프랑수아 리슐리외(Armand-Emmanuel du Plessis, duc de Richelieu)로, 그가 재직하는 동안 오데사는 흑해 연안에 위치한 러시아 제국의 주요 항구로 변모하였다.

9) 오데사의 이민자 인구의 제한 수와 도시의 특성에 대해서는 줄고, “이삭 바벨의 『오데사 이야기』: 결혼과 장례문화로 본 유대 카니발의 세계”, 『슬라브학보』 제 27권 3호, 2012, p. 194를 참조.

10) ВВ. Дорошевич, “Одесский язык”, *Одесса-Москва-Одесса. Юго-западный ветер в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М.: Вече, 2014), с. 33.

가 그 중심에 있었다.

이처럼 러시아 제국의 말기 오데사는 문화예술의 중심으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혁명 이전만 하더라도 오데사의 수많은 작가들과 풍부한 문학 층은 러시아 독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¹¹⁾ 수도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많은 문학가들이 오데사에 있던 표도로프(А. Фёдоров, 1886~1949)¹²⁾의 다차(дача)를 다녀갔다. 코발레프스키 다차 村(Дача Ковалевского)에 위치한 표도로프의 다차는 젊은 오데사 문학가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작가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장소였으며,¹³⁾ 이곳에서 문학 서클의 활동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¹⁴⁾ 그러나 소비에트 시대와 더불어 이러한

-
- 11) 오시프 라비노비치(О. Рабинович), 세몬 유슈케비치, 알렉산드르 표도로프(А. Фёдоров), 그리고 펠리에톤(Фельетон)의 황제라 할 수 있는 블라스 도로세비치(В. Дорошевич)와 그의 동료이자 풍자가이며 시온주의자로 무대에서 명성을 날린 산문작가인 돈 아미나도, 기자인 블라디미르 자보틴스키 등은 오데사에서 적극적으로 문학 활동을 이어가던 이들이었다.
- 12) 저널리스트이자 낭만주의자이며, 시인이며 번역가이자 드라마 작가인 표도로프는 사라토프에서 태어나 인생의 대부분을 오데사에서 보냈으며 오데사 문학사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표도로프의 희곡 『풍해를 입은 수목(Бурелом)』이 알렉산드롭스키 극장의 무대에서 상연되기도 했다. 또한 7권으로 이루어진 그의 전집이 1911~1913년에 모스크바에서 출판되기도 했다.
- 13) 이곳에서 카타예프가 자주 오데사를 방문하던 부닌(И. Бунин)을 만났다. 표도로프와 올레샤가 알고 있었으며, 올레샤는 초기 작품인 『5월의 시(Майские стихи)』(1917)를 표도로프에게 바친다. 오데사는 부닌이 좋아하던 장소 중 하나였다. 그는 극동이나 이탈리아 여행을 갈 때 이곳을 지나갔고, 러시아로 돌아가는 길에도 이곳을 들렀다. 그는 오데사의 다차에 오랫동안 머물렀으며, 『오데사 비평(Одесское обозрение)』의 소유주이자 편집장인 차크니(Н.П. Цакни)의 딸인 안나 차크니와 이곳에서 1898년 결혼을 했다. 부닌은 유슈케비치 및 표도로프와 친분을 맺고 있었고, 오데사의 유명한 화가인 포트르 닐루스(Пётр Нилус)에게 문학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권유하기도 했다. 올레샤는 『이별의 서적(Книга прощания)』에서 부닌에게 자신의 동료인 발렌틴 카타예프를 소개했던 것을 회상하고 있다.
- 14) 1919년에서 1920년 시기 당시 최고 인기를 구가하던 오데사 문학배우협회 <리테라투르카(Литературка)>의 파티에 수도권 출신의 많은 문학가들이 드나들었다. 이 파티에서 젊은이들이 저명한 거장들과 교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20년 오데사에서 망명한 비스크(А. Биск)에 따르면, 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그리고 다른 도시들에서 피난 온 작가들이 오데사에 머물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에는 톨스토이(А. Толстой), 크란디예프스카야(Н. Крандиевская), 볼로린(М. Волошин), 부닌(И. Бунин), 알다노프(Алданов) 등이 있었다고 한다. 이 파티에서

장소들과 작가들은 명성의 뒀안길로 사라졌고, 오테사를 중심으로 왕성했던 문학 활동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오테사의 황금기보다 시기적으로는 늦지만, 1931년에 발표된 레프 슬라빈(Л. Славин: 1896~1984)의 『상속인(Наследник)』은 오테사 문학의 연장선상에 놓여있으며, 전문 작가로서의 영리함이 돋보이는 소설이다. 이 작품은 발표 당시 전혀 주목받지 못했고, 이렇다할만한 문제의식도 보이지 않았으며, 그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에 대한 서술에 불과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점이 오늘날에 이르러 당시의 오테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오테사의 삶과 당시의 시대상, 그리고 ‘황금 세대 젊은이들(золотая молодёжь)’의 태도, 혁명 서클 및 병영막사와 참호에서의 세태가 이 소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 안에서 사랑의 상처로 인한 슬픔, 명예와 일에 대한 갈망, 그리고 이러한 삶 속에서 자신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며, 심지어 작가의 고향인 오테사 곳곳의 지형까지도 선명하게 묘사된다. 이 소설에는 특히 제국 시기부터 진행되어온 유대인들의 동화와 오테사 문학의 특징, 그리고 당시 유대인 사회의 전형이 잘 드러나고 있다.

주인공 세르게이의 아버지 니콜라이 알렉세예비치 이바노프는 카드놀이에 패한 지주이며 자살로 인생을 마친다. 어머니 사라 아브람손은 정교로 개종해 이름과 부칭을 러시아인처럼 바꾼 후 결핵으로 죽는다. 친할아버지는 샤벨스키(Шабельский) 백작이고, 외할아버지는 곡물상인인 아브람손(Абрамсон)이다. 세르게이는 러시아 귀족 가문을 이어나가거나 유대 상인의 노선을 밟을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 유산을 모두 거부한다. 아버지가 러시아 귀족이고 어머니가 상인계층 출신으로 세례받은 유대인인 가정은 오테사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유대인들은 모계를 통해 혈통을 이어나가게 마련인데, 세르게이는 어머니의 개종으로 유대 민족과의 끈이 단절되어버렸다. 세르게이의 문화는

톨스토이가 막 집필을 끝낸 희곡 『사랑- 황금의 서적(Любовь - книга золотая)』을, 블로르신이 『성스러운 루시(Святая Русь)』를 낭독했다. 이 회합에서 바그리츠키, 올레사, 카타예프, 아달리스, 피올레토프(А. Фиолетов) 등 수많은 문학가들이 탄생했으며, 이러한 작가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들이 쓴 작품들을 바로 접할 수 있었다.

당연히 러시아적일 수밖에 없다. 세르게이의 어머니처럼 정교의 수용을 통한 동화 혹은 문화적 동화는 오데사에서 전형적이었다. 배타적인 다른 지역의 정통파 유대인들과 달리 오데사의 유대인들은 ‘동화(ассимиляция)’가 특징적이었다. 슈무엘 우시슈킨(Шмуэль Усышкин)의 회상기 “어머니 오데사(Одесса-мама)”에는 이러한 특징들이 잘 설명되고 있다.¹⁵⁾

Еврейское население Одессы обладало собственным характером, не похожим на характер евреев из других мест в России. Самым заметным отличием было ослабление традиционной еврейской жизни, бытующей в еврейских местечках. [...] Многие годы, ещё до революции, говаривали ортодоксальные евреи: «За 70 верст от Одессы пылает геенна огненная»¹⁶⁾

오데사의 유대인들은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어서 러시아의 다른 지역 유대인을 전혀 닮지 않았다. 가장 큰 차이는 유대인 거주마을(슈테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략] 혁명 전에도 오랜 세월 동안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오데사로부터 70 베르스타 거리에 화염의 지옥이 활활 타고 있다.»¹⁷⁾

오데사에는 많은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비했다. 러시아 동유럽 유대공동체를 구별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이디시어(язык идиш)¹⁸⁾를 들 수 있지만, 오데사에서 이디시어는 널리

15) 슈무엘은 시온주의자로 잘 알려진 오데사 출신의 메나헴 우시슈킨(Менахем Усышкин)의 아들로, 자신의 아버지와 친구들이 오데사에서 보냈던 시기를 회상한 “어머니 오데사(Одесса-мама)”를 선집 『모리아(Мория)』에 발표했다. 아버지가 건국 공신 중 한 사람이었던 만큼, 대중 앞에 나설 기회가 잦았고, 그 때문에 오데사에 대한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 자료: “Возвращаясь к теме или «Одесса — мать городов израильских?»” <http://www.migdal.org.ua/migdal/27975/> (검색일: 2014년 10월 10일)

16) В. Ярмолинец, Указ. соч.

17) 마지막 부분은 오데사가 마치 구약시대의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키듯 묘사되고 있다. 정통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오데사는 그만큼 타락한 곳이었다.

18) 이슈케나지 유대인(중부 및 동유럽 출신의 유대인과 그 후손들)들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이디시어는 처음에는 2개의 언어 계통, 즉 썬어 성분(최초의 유대인 이주자들이

퍼지지 못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러시아어를 구사했고, 젊은 세대들 또한 이디시어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있었다.¹⁹⁾ 동화(ассимиляция)는 세몬 유슈케비치(С. Юшкевич)를 비롯하여 바벨과 슬라빈의 창작에서도 드러나듯이 오데사 문학전통의 중요한 요소였다.²⁰⁾ 오데사의 유대인들이 러시아의 삶에 동화된 것처럼 오데사의 유대 작가들 역시 러시아 문학으로 동화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자신의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을 고집하는 대신, 러시아 문학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었다.

III. 새로운 문학 주인공의 탄생: 러시아식 피카로(picaro)

바다를 차지하는 것이 전 세계의 패권을 쥐는 것이라 생각했던 러시아는 오래 전부터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무역 출구를 찾고 있었다. 흑해 연안에 위치한 오데사는 바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장소였다. 18~19세기 러시아는 주요 이민국 중 하나였고, 오데사는 실험 도시적 성격이 짙었다.²¹⁾ ‘북방의 팔미라’라는 별칭을 가진 페테르부르크처럼 오데사 역시 ‘남방의 팔미라(Южная пальмира)’라고 불렸다.²²⁾ 고대 시리아의 도시 팔미라에서

중동에서 유럽으로 가져온 고전시대 이후의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이루어진 것)과, 문법이나 어휘에서 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게르만어 성분(수많은 고지 및 중부 독일어 방언의 요소들을 조금씩 합한 것)이 복잡하게 융합되어 형성되었다. 또한 약간의 로망스어 낱말도 일찍부터 이디시어에 나타났다. 이디시어는 독일어 사용 지역에서 처음 생겨나 동유럽의 거의 전역으로 퍼졌고, 이곳에서 슬라브어 성분을 받아들였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 인용.

19) 1897년 조사에 따르면 당시 오데사의 러시아어 인구는 51%, 이디시어 인구는 33%를 차지했으며, 우크라이나어 인구는 6%에 불과했다. Robert A. Rothstein, "How It Was Sung in Odessa: At the Intersection of Russian and Yiddish Folk Culture. *Slavic Review*. Vol. 60, No. 4. Winter, 2001, p. 782.

20) 바벨의 작품 속 ‘동화(assimilation)’에 관해서는 줄고, 「탈민족 담론으로 본 유대적 정체성: 이삭 바벨의 문학세계를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 vol. 23. 2012를 참조.

21) Е. Каракина, *По следам "Юго-запада"* (Новосибирск: Изд-во "Свиньин и сыновья", 2006), с. 8.

22) 오데사는 러시아 제국의 다른 도시들과 확연히 달랐지만, 페테르부르크와는 유사한 부분이 많았다. 표트르가 세운 도시 페테르부르크, 예카테리나 2세가 세운 오데사는

유래한 이 명칭은 도시의 화려함과 건축술이 아름답고 뛰어난 것을 강조한다. 인간 노력의 성취가 느껴지는 오데사는 제국 말기 수도권에 버금가는 장소로서 급부상되었다.

일반적으로 무역과 거래가 왕성한 항구에는 사람이 많이 몰리면서 밀수와 범죄에 노출되기 쉽게 마련이다. 바벨의 『오데사 이야기』(1931)에는 오데사 항구 주변에서 살아가는 갱단과 밀수업자들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바벨이 창조한 베냐 크릭(Беня Крик)은 실제 오데사에 살고 있던 강도를 모델로 삼아 창조한 형상이지만, 무엇보다도 오데사 문학에서 자주 등장했던 피카로(picaro) 유형의 완결판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러시아 문학에 피카로 유형이 등장하게 된 데에는 바로 이 오데사라는 창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레반트적인 특성이 오데사 문학과 접목되는 부분도 흥미롭다. 흔히 서구의 피카레스크 소설로만 알려져 있던 양식이 유럽으로 들어오게 된 데는 근동의 영향이 컸다. 페르시아의 바디 알 잘만 알 하마디는 피카레스크 장르의 개척자로, 10세기 이미 아랍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다. 13세기에 이르러서는 스페인에 살던 랍비 예구다 벤 솔로몬 알하리지가 초기에는 페르시아 작가들을 번역하다가 후에 직접 글을 써서 발표하였다.²³⁾ 피카레스크 소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지는 않았지만, 지중해 지역에서는 오히려 험잡꾼을 다룬 레반트 소설이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었다. 오데사의 레반트들은 지중해 문화권의 서구주의자들로, 새로운 주인공 유형이 탄생했음을 알리는 것이었다.

1535년 최초의 유럽판 피카레스크 소설 『라사리요 데 토르메스의 삶, 그의 행운과 불운(Жизнь Ласарильо с Тормеса, его невзгоды и злоключение)』²⁴⁾이 등장한다. 익명으로 발표된 이 소설은 센세이션을

역사적 관점에서 데미우르그(창조주)의 명령과 실행의지에 따른 결과물이었다.
23) 피카레스크 소설은 16~17세기 스페인에서 유행한 문학 양식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피카레스크 소설의 대표인 『돈키호테』의 1부가 1605년, 2부가 1615년에 발표되었지만, 근동에서는 이보다 훨씬 앞선 10세기에 이미 피카로가 등장하는 소설들이 있었다. 이러한 문학 양식이 스페인으로 번역된 것은 13세기 무렵이고, 스페인 작가들의 손을 거쳐 새로운 창작으로 진화되면서 꽃을 피운 것은 17세기에 이르러서였다.

24) 스페인 소설인 『라사리요 데 토르메스』은 라사리요가 편지형식을 빌어 자신의 과거를 고위관료에게 고백하는 자전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피카로’가 작품의

일으키고 주요 유럽어로 번역되어 유포되었다. 스페인의 피카레스크 소설이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의 나라들에서 받아들여지고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되고 완성되었던 것과 달리 문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유럽에서 피카레스크 소설이 유포되는 토양을 제공한 것은 르사주(Lesage, Alain-Rene)였다.²⁵⁾ 러시아에서 르사주의 『질 블라스(Жиль Блаз)』가 대단한 성공을 얻게 되고 1814년에 바실리 나레쥬니(Василий Нарезный)의 『러시아의 질블라스, 아니면 치스타코프 공작의 편력(Российский Жилблаз, или Похождение князя Г. С. Чистякова)』이 등장한다.²⁶⁾ 1821년에는 최초의 러시아 베스트셀러인 파데이 불가린(Фаддей Булгарин)의 『이반 비지긴(Иван Выжигин)』이 10,000부를 발행할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끈다.

러시아에서 이후에 나오는 피카레스크 소설들에서 주인공의 형상과 서술구조는 약간의 변형 과정을 거친다. 『라사리오 데 토르메스의 삶, 그의 행운과 불운』에서도 드러나듯이 여러 주인들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험잡꾼(плут)인 주인공이 등장하고, 연대기적 순서 속에 주인공의 삶을 묘사하는 파블라(Фабула)가 있으며, 험잡꾼이 직접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풍자적으로 묘사하는 특징들을 갖기에 이른다.²⁷⁾ 18세기 말 무렵 러시아는 영국의 감상주의 소설이 피카레스크 소설보다 더 대중적이었고, 스코틀랜드 작가인 토바이아스 스몰렛(Тобайас Смоллетт)의 『로테릭 랜덤(Родерик Рэндом)』처럼 19세기 초반의 러시아 피카레스크 소설들은 피카레스크와 감상주의를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엿보였다.²⁸⁾

일찍부터 외국문화의 관문이었던 오데사는 피카레스크 소설 양식을 발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었고, 특히 이러한 장르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발전시킬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데사인들의 전형성

모든 성격을 지배한다는 점, 일화들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으며, 이 일화들 간에는 연관성이 없다는 점, 일인칭 자전구조, 하급계층의 반주인공(anti-hero)의 주도적 역할, 다양한 만남을 통해 인간군상이 고발되는 피카레스크 소설의 전형을 보여준다. 프랑스에서도 르사주 이전까지 이와 같은 스페인 소설들이 한동안 인기를 끌었다.

25) Ю. Штридтер, *Плутской роман в России* (СПб: Алетейя, 2015), с. 30.

26) В. Ярмолинец, Указ. соч.

27) Ю. Штридтер, Указ. соч., с. 19.

28) Там же, с. 34.

때문이었다. 오데사인들은 마치 프랑스의 마르세이유 사람들을 러시아로 옮겨다놓은 것 같았다. 그들은 생각이 가볍고 자랑하길 좋아하며 게으름뱅이에도 대단한 거짓말쟁이이며, 또 열정적으로 농담을 즐겨했다.²⁹⁾ 오데사 문학이 낳은 가장 위대한 피카로 형상은 바로 『열두 개의 의자(Двенадцать стульев)』(1927)의 오스타프 벤데르(Остап Бендер)와 앞서 『오데사 이야기』의 베나 크릭이다. 바벨이 오데사 학파(Одесская школа)의 태양라면, 일프 페트로프는 웃음이었다.³⁰⁾ 소비에트 풍자 문학의 대표작이라고 알려진 일프-페트로프(Ильф-Петров)의 『열두 개의 의자』는 17세기부터 시작된 전통적인 유럽 풍자문학의 계보를 잇고 있다. 작품 속 등장인물인 오스타프 벤데르는 러시아 문학에서 그 동안 볼 수 없었던 매력적인 사기꾼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열두 개의 의자』는 1920년대의 혁명과 내전, 그리고 신경제정책의 도입으로 전체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정치적 사회주의, 물질적 자본주의의 대치되는 상황, 그리고 일반인들의 내면에 과거 러시아에 대한 향수가 자리하고 있는 혼란스런 상황을 그리고 있다. 이 소설은 일확천금을 노리며 보석이 숨겨져 있다는 의자를 찾으러 떠나는 이야기로 돈키호테식 모험소설의 전형을 따른다. 기사 보로바니노프(Киса Боровяников, 실제 이름은 이폴리트 마트베예비치 보로바니노프(Ипполит Матвеевич Боровяников)와 오스타프 벤데르는 기존의 주인공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 둘은 소비에트의 공식 문화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신분의 한계를 갖고 있다. 보로바니노프는 호적 관리국에서 일하는 귀족 출신의 관료로, 과거의 신분을 고려해보면 이미 숙청되었어야 할 인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노동자와 농민의 주적인 욕심 많고 게으르며 거드름이나 피우는 대명사인 관료로 일하고 있다.

소비에트 시기 외국인들을 잠재적 스파이로 간주하던 것을 고려해보면, 자신의 아버지가 터키 국적자라고 주장하는 벤데르 역시 주류 세계에서 벗어 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벤데르의 사고방식과 그것의 표현하는 방법은 전형적인 오데사 사람답다. 사물과 사건, 사실들을 비딱한 시선으로 바라보

29) Е. Каракина, Указ. соч., с. 46.

30) 바그리츠키는 강한 매력을 가진 중심으로, 남서문학의 누룩과도 같은 존재였으며, 카타예프와 올레샤는 오데사 학파의 직물, 인베르(В. Инбер)는 레이스와도 같았다. Там же, с. 85.

며, 갖춰진 상황이나 규범, 교리 속에서 삶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³¹⁾ 벤데르스 사기꾼 기질이 다분해서 체스 그랜드마스터, 화가, 작가, 기자, 주택국 직원, 소방 감독, 비밀결사 직원, 거지, 매표원 등등 다양한 직업으로의 변신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급한 사기꾼이 아닌 그동안 러시아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활력이 넘치고 긍정적인 사기꾼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의기소침해하지도 않는다. 그가 매력적인 것은 사기행각을 벌이는 대상이 사회적 약자나 선량한 시민이 아닌 부패한 관료와 졸부, 기득권층이기 때문이다. 일프-페트로프는 벤데르스에게 자신들의 성격과 기질을 부여했다.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페트로프의 활기찬 열정을, 그리고 일프의 철학적 우울함을 이 부정적 주인공에게 불어넣은 것이다. 부정적 캐릭터로 인해 벤데르스는 소비에트의 긍정적 주인공에게는 허가되지 못한 말들을 마음껏 할 수 있었다.³²⁾

또 다른 오데사의 피카로 형상은 바벨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열두 개의 의자』는 주인공들의 보물찾기를 통해 만나는 다양한 군상들이라는 편력소설 형식에 기초한 데 반해, 바벨의 『오데사 이야기』는 오데사의 몰다반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모든 등장인물들은 육체의 힘과 가능성의 존재로서 활기 찬 생명력으로 살아 숨쉰다. 것처럼 오데사 무대는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그려지고 있다. 갱단과 밀수업자들로 가득 채워진 바벨의 오데사 공간은 약자를 보호하고 공권력을 심판하며 졸부들을 조롱한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주인공 베냐 크릭이 서 있다. 그를 둘러싼 음주, 음식, 취기, 성(性)은 강한 육체의 에너지를 그대로 드러낸다. 진부한 문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베냐는 부정적 형상이다. 긍정의 반대로서의 부정이 아닌 순종적이지 않으며 다루기 힘든 사람이란 면에서 그러하다.

오데사의 황금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발표된 바벨의 『오데사 이야기』는 그야말로 오데사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실증자료와도 같았다. 벤데르스는 살과 피로 이루어진 위대한 책략가로서, 기발하고 다재다능하며 유쾌하다. 그야말로 인간 그 자체인 것이다. 베냐 크릭은 오데사라는 도시가 오랫동안

31) Там же, с. 144.

32) Там же, с. 149.

동안 빛을 발할 수 있게 만든 존재였다. 그 역시 육체가 강조되며, 러시아 문학을 통틀어서 가장 매력적인 전사라고 일컬을 만큼 의협심이 강하다. 오테사 문학에서는 이처럼 각각의 개성을 드러내는 육체만 존재할 뿐, 기존 도시 소설에서 보던 권력을 가진 주요 인사나 그 권력에 의해 희생당하는 소시민적인 인간, 즉 크고 작은 인간이 없다. 절망적인 모습으로 미로같은 거리를 따라 배회하는 그와 같은 인간은 없다. 이곳에는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는 악령이 다스리는 장소가 없다. 오테사는 사람들을 위한 도시이며, 인도적이고 인간의 공간이다.³³⁾

인간들이 만든 문화와 고유의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오테사는 20세기 초반 러시아의 독특한 공간이었다. 오테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살고 여러 존재들,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며, 규정되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찬 곳이었다. 그야말로 열광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다. 바벨은 오테사를 가리켜 ‘살기에 편하며 명료한 삶을 살 수 있는 도시(город в котором легко жить, в котором ясно жить)’라고 말하였다.³⁴⁾

이처럼 오테사 산문들은 소비에트 시대로 접어들면서 당연시되던 그리고 익숙한 전형적인 주인공들을 거부한 채 자유로운 오테사의 분위기를 반영한 인물을 창조하였다. 제국의 시대가 끝이 나고 혁명의 시대가 시작되자 오테사는 더 이상 문화적 중심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당시 부정적 주인공들(отрицательные главные герои)이 오테사 산문에 지배적이었던 것은 작가들의 내적 갈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³⁵⁾ 베냐 크릭은 지상에는 존재할 수 없는 공간에 살고 있다. 일프 페트로프가 묘사한 체르노모르스크(Черноморск)가 30년대 초의 오테사를 떠올리게 하는 반면, 바벨의 오테사는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이었다. 환상적인 오테사, 바벨의 오테사 우화는 현실을 대체하는 괴물로서 등장한 것이었다.³⁶⁾

33) В. Камыкова, “Тайна третьей столицы, или миф о свободе”, Сост. Калмыкова, В. В., Перельмутер, В. Г. *Одесс-Москва-Одесса. Юго-западный ветер в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М.: Издательский дом "Вече", 2014), с. 586.

34) Там же, с. 586.

35) Е. Каракина, Указ. соч., с. 149.

36) Там же, с. 153.

IV. 러시아 유대문학과 오데사의 언어

19세기 중엽 러시아 제국에서 유대 문화는 히브리어와 이디시어, 그리고 러시아어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³⁷⁾ 당시 유대인 인텔리들은 이 세 언어가 가능했으며, 작가들 가운데 다수가 두 언어 혹은 세 언어로 글을 쓰곤 했다. 당시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 간에는 지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졌고, 이 대화는 러시아의 유대 문화에 있어 매우 유익한 것으로 드러났다.³⁸⁾ 오데사는 뛰어난 문학 작품들이 나오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문학어의 형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오데사 유대인들은 이디시어보다는 러시아어에 익숙해 있었다.³⁹⁾ 오데사는 우크라이나어의 대양 속에 있는 러시아어의 섬과도 같았다.⁴⁰⁾ 그러나 이 역시 모스크바나 페테르부르크에서 사용하는 언어와는 차이가 있었다.⁴¹⁾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의 지역 방언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은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특성을 반영한 개성있는 언어의 창조였다는 점과 이것이 러시아어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오데사는 파리지앵보다도 더 파리지앵 같아서, 남녀를 부르는 호칭으로 *monsieur, madame*를 선

37) 페테르부르크에서 주간지 「여명(Рассвет)」, 「러시아 유대인(Русский еврей)」과 부록이 달린 방대한 분량의 저널 「상승(Восход)」은 히브리어, 이디시어, 러시아어로 된 러시아 유대 풍의 잡지들로 러시아 유대문학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문화적 결합 현상을 분류하고 학습하는데 일조했다. Верникова, Б. “Русско-еврей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тактовки классификации”. ЛЕХАИМ ОКТЯБРЬ 2008 ТИШРЕИ 5769 – 10(198) <http://www.lechaim.ru/ARHIV/198/198.html>(2012년 11월 10일)

38) Мордехей Альтшулер, “Этапы развития культуры на идише в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Л. Кацис, М. Касрина, Д. Фишман(ред.), *Идиш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в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М.: РГГУ, 2009), с. 15.

39) 20세기 초 러시아 제국에서 유대 정당들(еврейские партии)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의 언어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유대 민중들은 자신의 언어를 이디시어라고 생각한 반면, 시온주의자들은 유대 민족의 유일한 언어는 히브리어라고 주장하였다. 이념적으로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온주의자들은 러시아어와 이디시어로 자신의 저술활동을 이어갔으며, 유대 사회주의 정당들(еврейские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е партии) 또한 러시아어로 민중들에게 호소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Там же, с. 16.

40) Robert A. Rothstein, op.cit, p. 782.

41) Ibid, p. 782.

호하였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어로는 전통적으로 이름과 부칭을 함께 사용하여 상대를 부르지만, 오데사 사람들은 상대를 마치 제3자(третье лицо)처럼 지칭하는 낯선 화법을 사용하였다.⁴²⁾

Не хочет monsieur Иванов Чаю?⁴³⁾

이바노프 씨가 차를 좀 원하지 않을까요?

(원래 의미는 ‘이바노프 씨, 차 좀 드시겠습니까?’)

러시아어에서도 상대를 3인칭으로 지칭하는 사례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것은 오직 황제에게만이 가능했다. 하지만 오데사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어에는 러시아어에서 볼 수 없는 현상들이 자주 나타났다. 오데사로 몰려든 사람들은 예전에 자신들이 거주했던 나라의 언어 표현과 습관을 그대로 가져와 이것을 자신들이 쓰는 러시아어에 반영하였다. 오데사 언어에서 타언어의 흔적이 여실히 드러났다. 오데사로 유대인 뿐 아니라 몰다비아인, 불가리아인, 알바니아인, 폴란드인, 이탈리아인, 그리스인, 오스트리아인, 영국인, 네덜란드인을 비롯하여 쉰(전) 러시아인, 쉰(전) 유럽인, 심지어 아시아인의 일부도 몰려왔다. 도로세비치는 1895년 “오데사 언어(Одесский язык)”라는 펠리에톤(фельетон)⁴⁴⁾에서 이런 오데사의 언어를 두고, 언어가 아닌 ‘언어로 이루어진 비트 샬러드(винегрет из языка)’라고 표현한다.⁴⁵⁾ 온갖 채소들을 넣어 만든 샬러드이지만, 비트 특유의 붉은 색 때문에 모든 채소들이 붉게 물들어 마치 비트로만 이루어진 샬러드인양 하나의 전체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오데사 언어는 살라미(колбаса, salami)처럼 전 세계 언어들로 채워 넣고 그리스식으로 조리한 후 폴란드식 소스를 끼얹은 것 같았다⁴⁶⁾고 설명한다. 것처럼 오데사

42) ВВ. Дорошевич, Указ. соч., с. 19~20.

43) Там же, с. 20.

44) 1930년대 소비에트에서 유행하였던 저널리즘 예술문학으로, 공공생활에서의 왜곡된 현상들을 조롱하며 정기간행물 형태의 풍자 장르로 자리 잡았다. 펠리에톤 작가 중 다수가 유대인이었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유대인들의 독특한 유머 감각이 이러한 장르를 확산시키고 발전시킨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45) В. Дорошевич, с. 22.

46) Там же, с. 25.

언어는 이질적이지만 철저하게 러시아어로 통합되었다. 오데사 언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유대인들이었다. 1927년 파리에서 죽은 유슈케비치를 기념하는 선집에 안드레이 레빈손(Андрей Левинсон)은 오데사 문학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лингвистическая оригинальность писаний Юшкевича, которая есть не прихоть, не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стиль, а живая разновидность русской речи, типический "идиом" еврея, изъясняющегося по-русски, оставаясь евреем. Говор этот, служащий поныне для языкового общения целого поколения и класса русского еврейства, есть ни что иное, как преломление семитического темперамента и внутреннего уклада сквозь формы русского словаря.⁴⁷⁾

유슈케비치 저작의 언어적 독창성은 변덕스럽다거나 개인적인 문체가 아닌 러시아어의 살아있는 변형, 유대인이면서 러시아어로 설명할 수 있는 유대인의 전형적인 관용구가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러시아유대인들의 전 세대와 계급의 언어적 소통을 담당하는 이 관용구는 다름 아닌 썬족 특유의 굴절이며 러시아어 어휘형태를 통한 내적 습관이다.

조음(артикуляция), 진동(Вибрация), 배음(обертон)에 대한 인용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조음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유대인 일화에서 Мойша(Мойша)를 미샤(Миша)로 대체하면, 즉 유대인의 이름을 러시아인의 이름으로 바꾸면 유대인의 말투는 제거되고 일화는 유대적이 되지 않는다. 문자화된 텍스트에서 억양은 구어일 때보다 잘 드러나지 않지만, 비전형적인 문법으로 인해 ‘유대적 특성(еврейскость)’이 더욱 두드러지게 마련이다.⁴⁸⁾ 오데사 방언에서도 독일어 문법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 Я имею гулять.
- Мы имеем кушать.
- Он имеет соскучить.
- 난 산책을 하고 있어요.

47) В. Ярмолинец, Указ. соч.

48) Ibid.

- 우리는 밥을 먹고 있어요.
- 그는 무료함을 느끼지요.

오테사에서 ‘иметь(가지다)’ 동사는 돈을 제외하고 모든 것과 결합해서 사용이 가능했다.⁴⁹⁾ 위의 예문에서 보다시피, иметь동사는 현대 러시아어의 용법에서 볼 때 아무런 뜻을 지니지 않으며, 단지 주어에 맞게 인칭변화하면서 동사원형과 결합하고 있을 뿐이다. 즉, иметь동사는 마치 영어의 have처럼 오테사 언어 속에서 조동사로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의 언어 속으로 스며들었던 독일어의 흔적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러한 예는 바벨의 『오테사 이야기』에 수록된 단편 <왕초(Король)>에서도 나타난다.

«Слушайте, Король, - сказал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 я имею вам сказать пару слов.»⁵⁰⁾

“왕초, 들어보세요. 제가 두어 마디 당신께 전할 말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젊은이가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동사들은 원래 러시아어에서의 쓰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었다. “Держут за босявгу(몸을 파는 어린 계집이라고 생각한다).”에서 держут(붙잡다)은 считают(간주하다) 대신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занять(차지하다)’ 동사의 경우 ‘дать взаймы(빌리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Я занял ему сто рублей.
나는 그에게 100루블을 빌려주었다.

격 지배도 러시아어의 일반 용법과는 달랐다. ‘무엇인가를 그리워하다’라는 표현의 скучать о чём-нибудь, скучать по чему-нибудь 대신 скучать

49) В. Дорошевич, Указ. соч., с. 25.

50) И. Бабель, *Конармаия. Одесские рассказы* (М.: Астрель 2010), с. 213. 모든 번역과 밑줄은 필자의 것임.

чем-нибудь 를 사용하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다'는 скучать по кому-нибудь 대신 скучать за кем-нибудь를 사용하였다. 또한 ‘~를 조소하다’라는 표현의 смеются над кем-нибудь 대신 смеются с кого-нибудь를 사용하였다. 오테사 사람들은 격변화에 오용이 많아 희화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 점에서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격 체계가 덜 발달한 이디시어의 영향이 뚜렷했다.⁵¹⁾

(오테사 방언)

- Вы хотите песен? Их есть у меня.
- 노래를 원하세요? 저한테는 노래들이 많아요.

(러시아어 표현)

- Вы просите песен? Их нет у меня.
- 제게 노래를 부탁하시는 건가요? 아
는 노래가 없어요.

위의 문장에서 보면, 오테사 방언은 хотеть동사의 1인칭 복수형 хотите를 제대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생격의 사용법에 대해서도 혼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Их는 부정용법, 즉 нет와 결합이 가능한데,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오테사인들이 이디시어의 단어들과 표현을 혼동해서 러시아어에 적용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었다. “Она не женщина, а цимес.(그녀는 보통 여자가 아닌 너무 멋진 여인이지요)”에서 цимес(치메스: 각종 야채를 볶아서 달콤하게 만든 유대인들의 디저트 음식)는 러시아어에는 없는 말이지만, 뭔가 특별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이디시어 단어들을 직접적으로 러시아어로 가져와 사용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었다. 어법 역시 이디시어의 영향이 컸다. “Я знаю(나는 안다).”를 발음할 때 후부에 강세를 강하게 두면 “Я не знаю(모른다).” 또는 “Я не уверен(확신을 못한다).”라는 뜻으로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이디시어의 영향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강세가 마지막 음절 다음에 오는 폴란드어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Будьте здоровы(건강하세요).”라는 표현에는 행위의 대상을 지칭하는 여격을 추가시켜 반드시 사용하여 “Будете мне здоровы(나를 위해 건강해주세요).”라고 말하는 식이었다.

도로세비치는 오테사 방언에 나타나는 빈번한 물주대명사의 사용은 러시

51) Robert A. Rothstein, op.cit, p. 783.

아어에서는 전형적이지 않은 것으로 독일어의 영향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보다 정확히 말하면 독일어가 기저에 깔린 이디시어의 영향이었다. 오데사 지역에는 독일인 이주자들의 마을이 있었으므로 이들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상업, 정치, 학문, 예술 등 도시 삶의 전 영역에 스며든 유대인 공동체처럼 이들 역시 자신들이 속해있던 독일인 공동체를 넘어서서 과급을 피친 것이다. 오데사 유대인들은 이처럼 러시아어로 말하면서 이디시어의 통사적 구조와 어휘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었다. 바벨의 주인공 베냐 크릭의 이름도 오데사 특유의 합성어로 이루어져 있다.⁵²⁾ 베냐 크릭의 이름에는 독일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심지어 일본어의 어투가 동시에 담겨있다는 주장도 있다.⁵³⁾

현재 러시아에서 통용되는 은어 가운데에도 다수가 오데사로부터 온 것이다. 오데사 방언은 옛 오데사의 삶을 재구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로, 러시아어의 어휘가 풍부해지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데사 특유의 유머감각이 덧입혀져 표현들이 상당히 유쾌하면서도 재기발랄한 것이 특징이다.

| 표준 러시아어 | 오데사 은어 ⁵⁴⁾ |
|--------------------------------|---|
| баклажаны 가지들(채소) | синенькие 푸르스름하다는 뜻이나 오데사에서는 가지를 뜻함. |
| работа 노동 | авральная 집단 노동 시 서둘러야 하는 일을 일컬음. 선박노동에서 사용되는 단어였는데 오데사에서는 고된 노동을 뜻하는 말로 사용됨 |
| крупный мужчина 건장한 남자 | амбал 사내대장부 |
| крупная женщина, 가질이나 체격이 큰 여자 | бой-баба 여장부 |

52) 베냐 크릭의 이름이 영어, 독어, 이디시어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줄고, 「이삭 바벨의 『오데사 이야기』」, p. 197을 참조.

53) E. Каракина, с. 151.

54) 본 논문에서 제시된 오데사 방언은 V. Дорошевич와 V. Калмыкова의 수집 내용과 O. V. Белова(ред.), *Диалог между славянской и ев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ной традиции*. Академическая серия. Выпуск 29. Москва. 2010을 토대로 인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예시된 오데사 은어들이 현재 도표 왼쪽의 러시아어의 뜻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뜻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필자가 도표 오른쪽에 별도의 직역을 덧붙여놓았음을 밝혀둔다.

| | |
|---|---|
| - Как дела? 어떻게 지내세요? - Хорошо. 잘 지냅니다. | - Как дела? 어떻게 지내세요? - Всё в ажуре. 잘 지냅니다. (ажур는 бларовозгополучие(안녕)을 뜻하는 단어로, ‘지금까지’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аjour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
| ведущий себя неадекватно 부적절하게 행동하다 | Он больной на (всю) голову. 그는 제정신이 아닌(비정상인) 사람이다 |
| Помогите 도와주세요 | Берите на буксир. 밧줄에 매세요 |
| Считают за босьявку. | Держут за босьявку |
| убегая во всю прыть 전속력으로 달리며 | берут руки в ноги 손을 발에 대고 |
| превосхищая события (역사적) 사건을 예견하다 | берут вперёд паровоза 기관차 앞으로 가다 |
| обманывая 속이면서 | гонят волну 파도를 휘몰아치다, 거품을 내다 |
| не останавливаясь над достигнутым двигаются 달성해야 할 일을 놓고 멈추지 않으며 움직이다 | впрёд и с песней 꽃노래를 부르며 앞으로 |
| постоянно 항상 | всю дорогу 내내 |
| внезапно 갑자기 | мякнуть не успел 아용 소리를 낼 시간이 없었다 |
| безнадёжно 희망도 없이 | глухой манер 귀머거리 같은 예법 |
| очень быстро 매우 빠르게 | в темпе вальса 왈츠의 박자로 |
| сломаться 망가지다, 부서지다 | гавкнуться 작동을 멈추다 |
| устать 피곤하다 | выпасть в осадок 많이 마시다. |

자보틴스키는 언어학(лингвистика)이야말로 그의 삶에 있어 진정한 열정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위대한 러시아어의 조화로움(великорусский лад)’을 최대한 살리고자 단어를 선별해서 말하는 교육받은 사람들 속에 있으려 했고, 되도록 지역 방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다⁵⁵⁾고 진술한다. 이 말은 오데사 작가들의 언어 선택과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간접적

55) Е. Каракина, Указ. соч., с. 55.

으로 설명해준다.

오데사는 러시아의 다른 도시들과 달리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살면서 타 문화에 대해 호의적이었고, 또 각국에서 온 사람들 나름의 독특한 문화들을 터부시하지 않은 채 러시아 제국의 커다란 틀 안에서 모두를 포용하는 관용의 도시였다. 그와 같은 장점들로 인해 러시아 제국 말기 오데사에서 유대인들의 풍성한 문학, 문화가 꽃을 피울 수 있었다. 온갖 국가에서 온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이 오데사로 집결되면서 각기 다른 특성의 색을 발하고 민족문화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하나의 보편성으로 창조해낸 것이었다.

유대계 작가들이 중심이 되어 형성된 오데사 문학은 러시아 제국 내에서 상당히 이질적인 것이었다. 이들은 유럽적이면서 그리스적인 풍토에서 나온 이들이었다. 자유로운 문학풍이 살아 숨쉬는 남서문학은 제국 내에서의 독특한 문학 분위기를 형성하며 다채로운 글쓰기를 만들었고, 이것은 후에 1920년대 오데사 작가들의 문체적 실험과 유대적 성향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새로운 문학형식과 이념을 필요로 하는 소비에트 문학의 사명 하에 오데사 문학은 시대에 뒤떨어진 진부한 것이라는 비판과 이곳을 대표하는 솔롬 알레이헴(Шолом-Алейхем), 유슈케비치, 표도로프(А. Фёдоров), 부닌(И. Бунин) 등의 망명으로 러시아문학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남서 문학을 언급한 슈클롭스키의 논문은 이데올로기의 영역을 벗어난 연구라는 점에서 논란의 파장을 일으키고, 슈클롭스키의 참회로 일단락되었다. “남서(Юг-запад)”라는 제목은 그 자체로 논란거리였다. 1930년대에는 남쪽(юг)이라는 말은 물론이려니와, 서쪽(запад)이라는 말은 더더욱 사용해서는 안되는 금기어였다.⁵⁶⁾ 슈클롭스키의 기사는 충분히 이데올로기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당시 슈클롭스키의 반대파들은 오데사 학파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최종결론을 내렸지만, 오데사 출신의 작가들이 가진 특별한 방식의 글쓰기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다. 다문화 사회의 특징들, 유대 문화적 요소들, 외국어의 표현들이 러시아어로 들어와 만들어진 독특한 문체와 어법 등은 다름 아닌 오데사 문학만의 특별함이었다. 이처럼 ‘오데사 텍스트(одесский текст)’는 탁월한 문학의 거대 지층과도 같았다. 창작과 자유의 분위기는 이후로 오랫동안

56) Там же, с. 4-6.

동안 러시아 문학의 자양분이 되었다.⁵⁷⁾

남서 지역을 대표하는 소설들은 1인칭 시점에서 생각하는 자전적 이야기를 다루고, 서술에서 묘사가 주를 이루며 인상주의, 그리고 예기치 않은 은유들이 발생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슈바네츠키가 바벨, 일프 페트로프, 카타예프, 오이스트라흐(Ойстрах), 길레르스(Гилельс)를 가리켜 모두 자신의 친척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⁵⁸⁾ 소위 ‘오데사 학파(одесская школа)’라고 부를 수 있는, 오데사 출신의 작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민속이나 저널리즘, 그리고 천박하다고 여기던 구어체의 대중적인 장르로 옮겨갔다. 그리하여 직접적인 후계자들을 찾기조차 쉽지 않았다.⁵⁹⁾ 오데사 관련 자료 수집가이자 편찬자인 카라키나(Е. Каракина)에 따르면 1920년대에는 러시아 문학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데사 문학만이 있었다는 것이다.

오데사의 작가들은 비록 거주지가 변경되었어도 생각하고 숨을 쉬며 글을 쓰는 방식을 변경하지는 않았다. 그들의 중·단편, 서사시, 희곡을 포함한 모든 작품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남서’라는 황금 브랜드였다. 그들 모두 오데사라는 한 도시로, 그리고 오데사라는 한 학파로 묶을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학파란 수도권에서만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⁶⁰⁾ 카라키나의 정의는 오데사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 진정한 수도였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20세기 초반 오데사가 훌륭한 작가들을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100년 동안이나 풍부한 문화적 삶이 박동하고 있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처럼 오데사는 세워진 그 순간부터 이미 전설적인 도시, 신화적 도시가 되어 있었다.

‘도시 텍스트’는 도시의 초창기 신화에 근거한 예술작품, 그리고 역사적 작품과 기록문학의 집대성이다. 이것은 이후에 나오게 될 텍스트들에 미리 앞서는 것으로, 그것의 독특함을 미리 결정짓는 것도 같다. ‘도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작품에는 사건의 장소가 구조적으로 중요하다. 그것은 슈제트와 구성에 있어 표상체계를 결정짓고 작가의 예술기법 선택에 영향을 미친

57) Там же, с. 600.

58) Там же, с. 53.

59) Там же, с. 226.

60) Там же, с. 8.

다. 묘사된 사건은 해당 환경에서 지루함을 느끼는 가운데 벌어지고, 묘사된 특징들은 다름 아닌 도시 주민들의 특징으로, 동일한 표정에 특별한 표식을 지니고 있다. 해당 공간에서 자연-문화-인간의 관계는 공간의 특성에 따라 만들어진다.⁶¹⁾

이처럼 선명했던 오데사 문학이었지만, 황금시대의 작가들을 뛰어넘는 후속 세대가 나오지 못하고, 급격한 사회적 변화 가운데 여러 제약이 생기면서 명맥이 유지되지 못했다. 한창 정점에 달해 있던 20년대 이후 오데사 문학은 명성을 잃기 시작했고, 소비에트 내에서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부정되기까지 이른다.⁶²⁾ 2000년대 중반 이후 오데사 문학에 대한 언급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고, 2014년에 그동안 간헐적으로 나오던 논문들을 묶은 하나의 단행본이 나오으로써 재조명 작업이 점화되기 시작했다. 문제는 소비에트 비평에 의해 말살된 까닭에 오데사 문학이 남긴 유산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최근의 비평들이 하나같이 서두의 시작을 오데사 문학이 진실로 존재했는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규명작업부터가 우선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에트시기에 활동했던 작가들 가운데에는 '오데사의 작가'로 묶을 수 있는 이들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비록 이들이 제국 말기에 존재했던 유대계 작가들의 예술적 후계자였는지, 혹은 그들의 문체와 기법을 이어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자료의 부재로 인해 전혀 알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오데사 문헌과 정보들이 후세에게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슈클롭스키의 논문이 발표되고 30년이 지난 뒤, 발렌틴 카타예프가 표명한 유대 작가들의 유산에 대해 확신⁶³⁾은 이러한 유추들을 다시 한 번

61) В.В. Калмыкова, В.Г. Перельмутер, (сост.) *Город и люди*. Книга московской прозы ХХ века (М.: Русский импульс, 2008), В.В. Калмыкова, Указ.соч., с. 585-586에서 재인용. 이러한 도시 공간의 특별함이 페테르부르크의 안개(туманы Петербурга), 모스크바의 골목길(улочки Москвы), 러시아 도시들의 어머니 키예프(Киев - мать городов русских),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 오데사(Одесса-город у моря)로 정의하게 만든다.

62) 오데사 학파(Одесская школа)의 시작과 끝을 정확히 정의할 수 없지만, 그 시작은 분위기가 막 조성되기 시작한 1914년으로, 그리고 그것의 완결은 1986년 카타예프가 사망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Там же, с. 216.

63) 카타예프는 『망각의 풀(Трава забвения)』에서 표도로프와의 만남과 부닌의 문학수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V. 맺음말

남서 문학은 러시아 제국의 말기에 형성되어 오데사를 중심으로 꽃을 피웠지만, 소비에트의 획일적 문화 속에서 더 이어지지 못하고 러시아의 문학사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뿐만 아니라 부르주아적인 이들의 문화에 적대적이었던 소비에트 작가들에 의해 존재 자체가 부정되었으며 후속 세대를 더 낳지 못하는 불운까지 겪어야 했다. 남서 문학의 중심인 오데사는 러시아의 다른 도시와는 달리 다민족의 특성들을 갖고 있던 만큼, 다양한 서유럽의 문화들과 민족적 정서들이 한 데 어우러져 독특한 문학세계를 만들어내었다. 소비에트 문학의 매력적인 주인공 가운데 하나인 오스타프 벤테르나 베냐 크릭과 같은 러시아적 피카로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제국 시기 오데사에 풍부했던 서유럽과 레반트 문화유산의 영향이 컸다.

또한 러시아 유대문학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인 오데사의 분위기 덕택이었다. 전 세계의 대다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타민족들과 어우러지지 못한 채 폐쇄적인 삶을 산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불구하고, 오데사 유대인들의 경우는 동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러시아 사회에 들어갈 수 있었고, 또 그들이 가진 문화유산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서 러시아의 문화를 풍부하게 하는 장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 일례로 그들의 언어적 측면, 이디시어의 사용은 러시아어권 문화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흥미로운 조어와 표현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했으며, 양 언어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작가들의 노력까지 만들어냈다. 다수의 유대 작가들은 이디시어뿐 아니라 프랑스어, 독일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들에도 큰 관심을 보여 서유럽의 고전들을 번역하여 소개하는 일에 앞장섰다. 이디시어가 형성되는 과

업, 오데사에서 활동했던 세몬 유슈케비치와 블라스 도로세비치를 비롯한 다른 이들을 언급한 후 오래된 오데사 문학과 의 문서화된 정보가 후세대 작가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상상은 하기 힘들다고 고백한다. В. Ярмолинец, Указ. соч.

정에서 보다시피 다른 언어와의 혼용은 자연스럽게 그들로 하여금 다른 문화에 젖어 들게 만들었고, 서유럽과 러시아 문화에 대한 동경이 유대인 특유의 유머와 결합되면서 장르적 비틀기와 문체적 실험 등으로 이어졌다.

남서 문학이 문학의 소재와 주인공 형상들을 다양화시켰다는 점도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유럽풍의 주인공들과 다민족들의 등장, 유대인들의 동화 과정에서 겪는 아픔이나 우스꽝스러운 상황과 러시아인들의 부당한 폭력에 대해 통쾌한 복수, 그리고 익살맞은 사기꾼 등은 남서 문학이 발굴해낸 새로운 영역들이다. 이처럼 남서 문학은 러시아 제국과도 전혀 다른 이질적인 문화적 풍토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러시아문학의 전통으로부터는 벗어나 있었으며, 소비에트 관점에서 보자면 획일적 권위에 위배되는 제국 이단아로서 존재했던 것이다. 제국 내에서 남서 문학의 생성은 분명한 현상이었으며, 그것의 유산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 참고 문헌

- 최아영, 「러시아제국의 반유대주의: 1880년 초 남부 포그롬을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 23호. 문화사학회, 2012.
- ROTHSTEIN, Robert A, “How It Was Sung in Odessa: At the Intersection of Russian and Yiddish Folk Culture. *Slavic Review*. Vol. 60, No. 4. Winter, 2001.
- АЛЬТШУЛЕР, Мордехей. “Этапы развития культуры на идише в Советском союхе”, КАЦИС, Л., КАСПИНА, М., ФИШМАН, Д. (ред.), *Идиш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в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М.: РГГУ, 2009.
- БАБЕЛЬ, И. *Конармия. Одесские рассказы*. М.: Астрель, 2010.
- БЕЛОВА, О. В. (ред.) *Диалог между славянской и ев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ной традиции*. Академическая серия. Выпуск 29. Москва. 2010.
- ВЕРНИКОВА, Б. “Русско-еврей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тактовки классификации”.

ЛЕХАИМ ОКТЯБРЬ 2008 ТИШРЕИ 5769 – 10(198)

<http://www.lechaim.ru/ARNIV/198/198.html>(2012년 11월 10일)

КАЛМЫКОВА, В. В., ПЕРЕЛЬМУТЕР, В. Г. (сост.). *Одесс-Москва-Одесса. Юго-западный ветер в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М.: Издательский дом "Вече", 2014.

КАРАКИНА, Е. *По следам "Юго-запада"*. Новосибирск: Изд-во "Свинья и сыновья", 2006.

КАЦИС, Л., ТОЛСТАЯ, Е. "Русский Жаботинский — Жаботинский и Росси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мастерская в честь 130-летия В.Е. Жаботинского". *НЛО*. №108. 2011. <http://magazines.russ.ru/nlo%20/2011/108/ka47.html> (2012년 1월 5일)

СЛАВИН, Л. *Наследник*. М.: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81.

ШКЛОВСКИЙ, В. "Юг-запад". *Литературная газета*. № 1-2. 1933.

ШТРИДТЕР, Ю. *Плутовской роман в России*. СПб: Алетейя, 2015.

ЯРМОЛИНЕЦ, В. "Одесский узел Шкловского". *Волга*. № 1-2. 2011. <http://magazines.russ.ru/volga/2011/1/ia16.html> (2011년 5월 10일)

"Возвращаясь к теме или «Одесса — мать городов израильских?»" <http://www.migdal.org.ua/migdal/27975/> (2014년 10월 10일)

"Владимир (Зеэв) Жаботинский: Биографический очерк" <http://lib.ru/RUSSLIT/ZHABOTINSKIJ/bio.txt>

❖ ABSTRACT

Southwestern Literature as Heresy of the Russian Empire

Yi, Eun-Kyung

This paper looks at the literary mood of southwestern Russia in the late Russian Empire, while examining the writers of this area and their literary tendencies.

Southwestern literature was formed in the late Russian Empire, and prospered centering around Odessa. Because of the uniformity in the Soviet culture, however, it could not stay alive but disappeared in the history of Russian literature.

Odessa, the center of southwestern literature was a multiracial region unlike other Russian cities. A unique culture was created, therefore, combining the western European culture and local ethnicity.

Jews in Odessa could enter into the Russian society and assimilate naturally. They could utilize their talents as a strength to enrich the Russian culture without giving up their cultural heritage.

For example, in lingual aspects, using Yiddish was not against the Russian culture. In addition, it contributed to interesting new coinages and led to efforts among writers to minimize the gap between the two languages.

Many Jewish writers showed special interest not only in Yiddish but also in French, German and other languages. Therefore, they took the lead in translating and introducing west classics.

As evident in the way Yiddish language was formed, mixing their language with other languages enabled jews to soak their way into other cultures naturally. Their yearning for the Russian and western European cultures, combined with their unique sense of humor, led to generic twists and problematic experiments.

From another point of view, it is also unusual that southwestern literature diversified locational settings and heroic characters in literary works.

European style heros, appearance of multiracial people, pain or waggery experienced by Jews in their assimilation process, thrilling revenge to unfair violence of Russians, and espiegle swindlers are the new domains that southwestern literature pioneered.

In summary, southwestern literature was formed in a heterogeneous cultural climate, which was entirely different from the Russian Empire. In this regard,

it was in deviation from the Russian literary tradition. From the Soviet point of view, it existed as a heresy which was against the Russian Empire.

Key Words

남서 문학, 오데사, 동화, 유대인, 피카로

Southwestern Russian literature, Odessa, assimilation, Jew, picaro

논문접수일: 2015년 02월 10일

심사완료일: 2015년 03월 10일

게재확정일: 2015년 03월 16일